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총괄선거대책본부
노동본부 보도자료

문의

김주영 의원실

연락처

02-784-5260

e-mail

gimpolovekjy@gmail.com

〈중앙선대위 노동본부

(본부장 김주영 · 최철호 · 김영훈) 기자회견문〉

공공기관 노동자의 정치활동은 합법이다

내란정당 국민의힘의 공공기관 노동자 참정권 부정을 규탄한다

최근 한 언론이 〈한전 소속 노조위원장, 민주당 선대위 활동 … 국힘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가 삭제했다. 기사 내용에 따르면, 공기업 및 공공기관 임직원의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고, 가짜뉴스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공공기관 직원은 온전한 선거운동의 자유와 참정권을 합법적으로 보장받고 있다. 과거 공직선거법에서 공공기관 직원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일부 내용이 있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았다. 이에 2018년에는 공공기관 직원, 2024년에는 지방공사 직원의 선거운동 자유를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법률개정이 있었다.

그럼에도 헌정무시 내란정당 국민의힘은 공공기관 노동자의 참정권마저 부정하고 있

다. 기사에서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공기업 직원의 정치중립 의무는 상식”이라며 공공부문 노동자의 정치기본권을 부정했다.

“공기업 직원의 정치활동 자유가 상식”이다. 강승규 의원이야말로 합법적인 선거운동의 자유도 모르는 몰상식이다. 이미 2018년에 위헌 판결을 받은 사안을 다시 들고 나온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무시가 일상이 된 국민의힘의 현실이 개탄스러울 뿐이다.

국민의힘은 보수언론을 동원하여 공공기관 노동자의 합법적인 정치활동을 억누르고 방해하는 비열한 공세를 중단하기 바란다. 제아무리 국민의힘이 발악을 해도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이재명후보에 대한 지지와 적극적인 선거운동 참여는 봇물처럼 터져 나올 것이다. 45만 공공기관 노동자의 진짜 대한민국에 대한 열망은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끝.

※ 붙임. 기자회견 현장사진 2장

